

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

VIP 리포트

■ 청장년 가구의 엔겔·슈바베 계수 급등

발행인 : 김 주 현
편집주간 : 한 상 완
편집위원 : 주 원, 장후석, 백흥기
발행처 : 현대경제연구원
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-7
Tel (02)2072-6305 Fax (02)2072-6249
Homepage. <http://www.hri.co.kr>
인쇄 :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(02)2636-0555

-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.
-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.
-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,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(02-2072-6245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목 차

■ 청장년 가구의 엔겔·슈바베 계수 급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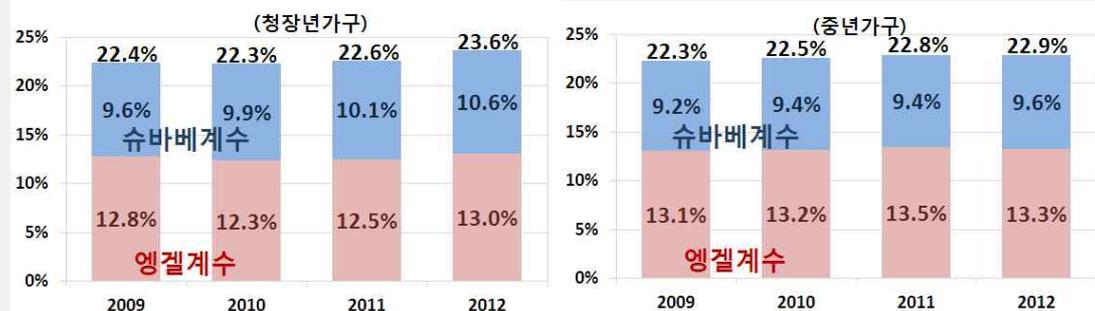
Executive Summary	i
1. 개요	1
2. 금융위기 이후 청장년 가구 살림의 상대적 악화	2
3. 청장년 가구 엔겔·슈바베 계수 상승의 원인	4
4. 시사점	8
【별첨】	10
【HRI 경제 통계】	14

엔젤 계수 및 슈바베 계수의 개념

- 엔젤 계수: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 비중
- 슈바베 계수: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비중

금융위기 이후 청장년 가구 살림의 상대적 악화

- 최근 청장년 가구의 엔젤·슈바베 계수가 다른 세대에 비해 빠르게 상승
 < 금융위기 이후 세대별 엔젤·슈바베 계수 >



주: 가구주 연령 청장년(20, 30대) 및 중년(40, 50대)의 2인 이상 가구 기준.

청장년 가구 엔젤·슈바베 계수 상승의 원인

- ① 가계소비지출의 위축(엔젤·슈바베 계수의 분모 항목)
 - 맞벌이 가구(취업 인원)의 감소, 근로 소득 및 가계 총 소득 증가 정체
 - 청장년 가구의 맞벌이 비중 35.4%(‘09년) → 32.9%(‘12년)
 - 이자 비용 등 비소비지출 부담 가중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위축
- ② 식료품 소비 지출액 증가(엔젤 계수의 분자 항목)
 - 식료품 소비를 줄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식료품 물가는 상대적으로 급등
 - 식료품 물가상승률: 6.4%(‘10년) → 8.1%(‘11년) → 4.0%(‘12년)
 - 소비자 물가상승률: 3.0%(‘10년) → 4.0%(‘11년) → 2.2%(‘12년)
- ③ 주거비 지출액 증가(슈바베 계수의 분자 항목)
 - 주택관리비, 월세 등은 소득 수준 및 지출 여력과 관계없이 상승세를 지속
 - ‘09~’12년 청장년 가구 주거비 연평균 증가율: 4.5%
 - ‘09~’12년 청장년 가구 가처분소득 연평균 증가율: 0.6%

시 사 점

- 첫째, 재형저축의 활성화 등을 통한 청장년 가구의 자산 증대 기회 제공
- 둘째,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기업의 고용 증대 유도
- 셋째, 임대 주택 보급 확대를 통한 청장년 가구의 주거유지비 부담 완화
- 넷째, 보육 지원 등 적극적인 공적이전 제도를 통한 세대 간 양극화 방지

1. 개요

○ 연구 배경

- 청장년 가구는 미래의 생산 및 소비를 담당해야 하는 세대
 - 본 보고서는 청장년 가구를 가구주 연령 20, 30대의 2인 이상 가구로 구분¹⁾
 - 청장년 가구는 향후 경제 활동과 소득 증대를 바탕으로 한 소비를 통해 내수 시장의 주축이 되어야 하는 세대
- 그러나 청장년 가구의 자연 감소와 더불어 재산 형성 기회의 축소, 최근의 소득 정체 및 가계의 질적 악화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
 - 고령화, 청년 취업난 및 결혼 기피 등의 영향으로 2003년에서 2012년 사이 전체 가구 중 청장년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3.4%에서 23.8%로 감소²⁾
 - 또한 부동산 등을 통해 재산을 형성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청장년층은 재산 형성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이들의 소비 및 시장 위축 문제도 부상 가능

○ 연구 방법

- 앵겔 계수 및 슈바베 계수의 세대 간 비교를 통해 청장년 가구 살림의 상대적 인 질적 수준 변화를 살펴봄³⁾
 - 앵겔 계수: 가계소비지출 대비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소비 지출의 비중
 - 슈바베 계수: 가계소비지출 대비 주거비 및 수도광열 소비 지출의 비중
 - 이들 수치의 상승은 기본적인 생활 관련 지출 비중의 증가에 따른 문화, 외식,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출 비중의 감소를 의미
- 청장년 가구와 중년 가구 간 소득, 지출 구조 추정을 중심으로 비교
 - 통계청의 각 연도별 가계동향조사(신분류)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2인 이상 기준 가구주 연령 20, 30대 가구와 40, 50대 가구의 가계 변화를 추정

1) 청년: 신체적,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. 20대 정도인 남자를 이르나 때로 그 시기에 있는 여자를 포함해서 이르기도 한다.

장년: 사람의 일생 중에서 한창 기운이 왕성하고 활동이 활발한 서른에서 마흔 안팎의 나이. 또는 그 나이의 사람. 국립국어원, 「표준국어대사전」.

2)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.

3) 현대경제연구원, “주거비 부담(슈바베 계수)이 급증하고 있다” 「현안과 과제 12-11」, 2012.

2. 금융위기 이후 청장년 가구 살림의 상대적 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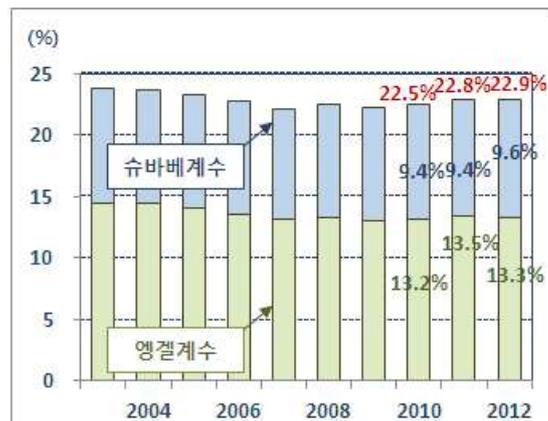
○ 엔겔 계수와 슈바베 계수의 동시 상승

- (엔겔 계수 상승) 2010년 이후 청장년 가구의 엔겔 계수가 확연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 한국 전체 가구의 엔겔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
 - 한국 전체 가구의 2012년 엔겔 계수는 14.2%로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14% 이상을 기록하였으며, 이는 2005년의 14.5% 이후 가장 높은 수치
 - 청장년 가구의 엔겔 계수는 2010년 12.3%, 2011년 12.5%, 2012년 13.0%로 나타나 최근 한국 엔겔 계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
- (슈바베 계수 상승) 비슷한 시기 청장년 가구의 슈바베 계수 역시 중년 가구에 비해 빠르게 상승
 - 청장년 가구의 슈바베 계수는 2008년 9.6%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2012년에는 10.6%까지 상승
 - 이에 비해 중년 가구의 경우 2012년 엔겔 계수는 상승세가 꺾였으며, 슈바베 계수의 상승폭 역시 크지 않아 청장년 가구의 상황과 대비

< 청장년 가구 엔겔·슈바베 계수 >



< 중년 가구 엔겔·슈바베 계수 >



자료: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재구성.

주: 가구주 연령 청장년(20, 30대) 및 중년(40, 50대)의 2인 이상 가구 기준.

○ 소득 수준 대비 기본 생활비(식료품비 및 주거유지비) 부담의 가중

- 앵겔·슈바베 계수의 보완을 위해 실질소득 대비 식료품비, 주거비, 주택 이자 비용의 비중 변화를 비교 시 청장년 가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급증
- (주거유지비 상승) 현재의 주거 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세대 전반적으로 증가세에 있으나 특히 청장년 가구의 상승세는 더욱 가파른 상황
 - 청장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 및 수도광열비와 주택 관련 이자 지출 비중은 2007년 이후 증가 추세를 지속
 - 이에 비해 중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 및 수도광열비와 주택 관련 이자 지출 비중은 최근 증가 추세가 둔화되는 상황
- (기본 생활비 부담 가중)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청장년 가구는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본 생활비를 부담
 - 최근 5년 간(2007~2012년) 청장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식료품비와 주거유지비 비중은 16.6%에서 18.3%까지 상승
 - 반면 중년 가구의 경우 2012년 상승 추세가 반전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17.3%로 하락

< 청장년 가구의 실질소득대비 식료품비 및 주거유지비 비중 >



< 중년 가구의 실질소득대비 식료품비 및 주거유지비 비중 >



자료: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재구성.

주: (1) 가구주 연령 청장년(20, 30대) 및 중년(40, 50대)의 2인 이상 가구 기준

(2) 실질소득은 가처분소득, 식료품비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소비 지출, 주거유지비는 주거 및 수도광열비와 주택 관련 이자 지출.

3. 청장년 가구 앵겔·슈바베 계수 상승의 원인

(1) 소득 증가 정체 및 이자 비용 증대에 따른 소비 지출 위축

○ 맞벌이 가구(취업 인원)의 감소와 소득 증가 정체

- (근로소득에 대한 의존) 청장년 가구는 중년 가구와 달리 근로자 가구가 많고, 이에 따른 근로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
 - 2012년 기준 청장년 가구 중 근로자 가구 비중은 78.6%이며, 총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4.3%
 - 중년 가구의 경우 근로자 가구 비중 65.8%, 총 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중 67.6%로 청장년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
- (취업 인원의 감소)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청장년 가구는 맞벌이 가구 및 취업 인원의 감소 등에 따라 근로소득을 포함한 가계 소득이 정체된 상황
 - 전체 청장년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09년 35.4%에서 2012년 32.9%로 감소하였으며, 가구당 취업 인원은 1.40명에서 1.35명으로 감소
 - 특히 2012년 청장년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1.2%, 취업 인원 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0.1%에 그쳐, 각각 7.5%, 4.3% 증가한 중장년 가구와 대비

< 청장년 가구의 소득 구조 및 맞벌이 가구 비중 >



< 중년 가구의 소득 구조 및 맞벌이 가구 비중 >



자료: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재구성.

주: (1) 가구주 연령 청장년(20, 30대) 및 중년(40, 50대)의 2인 이상 가구 기준.

(2) 2010년 실질 기준.

○ 이자 비용 부담 가중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감소

- 청장년 가구는 소득 증가의 정체와 더불어 이자 비용 등의 비소비지출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소비지출이 감소
- (가계소비지출 감소) 2012년 청장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증가한 반면, 가계소비지출은 오히려 감소
 - 2012년 실질 기준 청장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1.3% 증가하고, 가계소비지출은 2.3% 감소하면서 총 가계 지출은 1.5% 감소
 - 이에 비해 중년 가구의 경우 비소비지출 3.6% 증가, 가계소비지출 1.1% 증가, 총 가계 지출 1.7% 증가를 기록
- (이자 비용 부담 증대) 청장년 가구 비소비지출 증가는 이자 비용의 급증이 주요 원인
 - 청장년 가구의 2012년 이자 비용은 전년 대비 6.8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비소비지출의 증가율 0.4%를 크게 웃도는 상황
 - 이에 따라 청장년 가구의 전체 가계 지출 대비 이자 비용의 비중은 3.4%로 중년 가구(2.9%)에 비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

< 청장년 가구의 가계 지출 구조 >



< 중년 가구의 가계 지출 구조 >



자료: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재구성.

주: (1) 가구주 연령 청장년(20, 30대) 및 중년(40, 50대)의 2인 이상 가구 기준
 (2) 2010년 실질 기준.

(2) 식료품 및 주거비 지출의 지속

○ 식료품 물가의 상승세 지속

- 소득이 정체해도 식료품비 소비 지출의 감소가 쉽지 않은 가운데 식료품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
- (식료품 물가 상승 추세 지속) 소득 정체 및 전반적인 지출 여력 감소에도 식료품비 지출은 줄이기 힘들어 물가 상승 시 어려움이 가중
 - 금융위기 이후 식료품의 물가상승률은 2009년 7.6%, 2010년 6.4%, 2011년 8.1%, 2012년 4.0%(소비자 물가상승률: 2.8% → 3.0% → 4.0% → 2.2%)
- (청장년층 주요 소비 품목 물가 상승) 특히 2012년에는 청장년 가구의 주요 소비 품목 물가상승률이 전체 식료품의 평균 수준을 상회
 - 2012년에는 청장년 가구의 소비 지출 비중이 큰 품목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급등(유제품 4.5%, 당류 및 과자류 4.1%, 음료 4.6%)
 -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년 가구의 소비 지출 비중이 큰 육류는 -6.2%, 어류는 2.7%에 불과하며, 채소는 4.6%

< 청장년 가구 식료품비 지출 구조 > (%)

	2008	2009	2010	2011	2012
곡물	18.6	17.8	16.7	16.9	16.7
육류 및 수산물	25.0	25.2	25.1	25.2	24.5
유제품등	13.1	14.1	14.0	13.4	13.3
과일	11.4	11.7	11.7	11.8	12.2
채소	10.9	9.3	10.1	9.5	9.5
당류 및 과자류	7.7	8.6	9.0	9.3	9.6
음료	6.4	6.4	6.7	7.0	7.3
기타	7.0	6.9	6.7	6.9	7.0

< 중년 가구 식료품비 지출 구조 > (%)

	2008	2009	2010	2011	2012
곡물	18.8	18.3	17.1	17.1	17.1
육류 및 수산물	28.6	29.7	29.3	29.3	28.1
유제품등	8.0	8.7	8.5	8.4	8.6
과일	11.9	12.0	12.1	11.8	12.5
채소	13.3	11.7	13.1	12.0	12.2
당류 및 과자류	6.3	6.8	7.2	7.6	7.8
음료	5.5	5.3	5.4	5.8	5.9
기타	7.6	7.5	7.3	8.0	7.7

자료: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재구성.

주: (1) 가구주 연령 청장년(20, 30대) 및 중년(40, 50대)의 2인 이상 가구 기준

(2) 곡물은 곡물, 곡물가공품, 빵 떡류 포함, 육류 및 수산물은 육류, 육류가공품, 신선·염건수산물, 수산물가공품 포함, 유제품 등은 유제품, 계란 등 포함, 과일은 과일, 과일가공품 포함, 채소는 채소, 채소가공품, 해조, 해조가공품 포함, 음료는 비주류음료 기준.

○ 소득 및 지출 여력과 무관한 주거비 상승

- 주거비는 가구의 소득 수준 및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청장년 가구의 지출 여력에 따른 조정이 어려운 부분
- (주택 유지관리비 증가) 연료비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한 주택 유지관리비는 세대 간의 큰 차이 없이 상승 추세를 지속
 - 2012년 실질 기준 청장년 가구의 주택 유지관리비는 2.38% 증가하여 중년 가구의 증가율 2.40%와 크게 다르지 않음
 - 한편, 청장년 가구는 주거비에서 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는데, 이는 주거 면적이 좁은 이유에서 기인
- (월세 부담액의 증가) 월세 역시 세대와 관계없이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, 특히 청장년 가구는 소득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게 발생
 - 최근 5년(2007년~2012년) 동안 월세 가구의 연평균 월세 증가율은 청장년 가구가 4.2%이며, 중년 가구는 5.3%
 - 하지만 같은 기간 가처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청장년 가구 0.6%, 중년 가구 2.0%로 청장년 가구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

< 청장년 가구 주거비 >



< 중년 가구 주거비 >



자료: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재구성.

- 주: (1) 가구주 연령 청장년(20, 30대) 및 중년(40, 50대)의 2인 이상 가구 기준
- (2) 2010년 실질 기준
- (3) 주택 유지 관리비는 연료비, 관리비 등을 포함.

4. 시사점

첫째, 재형저축의 활성화 등을 통해 청장년 가구가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

- 현재 청장년층은 이전 세대와 달리 근로 소득 외에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
- 따라서 재형저축의 가입 대상 확대 및 소득 공제 등으로 이들 세대가 재산을 형성하여 향후 주요 소비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

둘째, 청년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기업의 근로자 고용 확대 유도 등 청장년 가구의 근로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

- 중년 근로자 가구와 이들의 근로 소득 증가에 맞물려 청장년 가구는 주 소득 원인 근로 소득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
- 이에 기업의 청년 고용에 대한 세제 확대 등 청장년 근로자의 고용 유도를 통한 가구 소득 증대 방안이 요구

셋째, 임대 주택의 보급 활성화 등으로 주거유지비를 비롯한 청장년 가구의 기본 생활비 부담을 완화

- 최근 청장년 가구 살림의 질적 악화는 소득 정체와 더불어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의 가중에서 기인
- 청장년 가구의 기본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 주택의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 자금 마련과 이자 비용의 부담을 축소시키는 방안이 필요

넷째, 보육 및 교육 지원, 사회 보험 등 공적이전 제도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세대 간 양극화 방지

-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소득 계층 간의 양극화 문제에 더해 최근에는 세대 간에 소득 및 가계 자산 증대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모습
-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공적 이전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이 중요

산업연구본부 김필수 선임연구원 (2072-6238, pskim@hri.co.kr)

【부 록】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

○ 슈바베 계수의 의미⁴⁾

-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의식주의 지출 비중은 낮아지고 자기 계발 및 여가 관련 소비 비중의 증대가 기대
 - 경제 이론상 인간은 소비 행위로 발생하는 효용을 통해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가구의 삶의 질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계 소비의 규모와 행태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음
 - 경제 발전 및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기본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의식주에 대한 지출 비중은 감소하고 문화, 레저, 외식, 교육과 같은 선진국형 소비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
- 가계 소비의 질적 수준 평가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앵겔 계수와 함께 협의의 슈바베(Schwabe) 계수⁵⁾를 사용
 - 슈바베 계수 산출식: 주거비 및 수도광열비 지출 ÷ 가계소비지출
 - 소득 수준과 수치의 관계: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치가 하락(소득 상승 → 슈바베 계수의 하락)⁶⁾하는 것이 일반적(다만, 일부 연구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비 역시 상승한다는 보고도 있음)
 - 주거비의 범위: 본래 슈바베 계수는 주거비(임대비 포함), 수도·광열비 등 주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소비만을 포함(협의)하지만 가구, 가전 등의 집기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(광의)⁷⁾
 - 한계: 주요 항목인 주거비의 경우 주택 이용 및 임대와 관련하여 국가 간의 특성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 시 한계가 발생(본 보고서는 한국 내 세대별 가구 간 비교를 수행)

4) 현대경제연구원, “주거비 부담(슈바베 계수)이 급증하고 있다” 「현안과 과제 12-11」, 2012.

5) 본 보고서는 생계비의 3대 비목 가운데 주거비(住) 및 식료품비(食)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, 식료품비 비중은 앵겔 계수로서 마찬가지로 경제 발전 및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수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. Engel(1857, 1895)

반면, 의복비(衣)의 경우, Streightoff(1911), Ogburn(1916)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향상될수록 의류비 지출 비중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득 수준과 의복비 지출 비중 간의 관련성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.

6) Schwabe(1868), *Das Verhältnis von Aliete und Einkommen*, Berlin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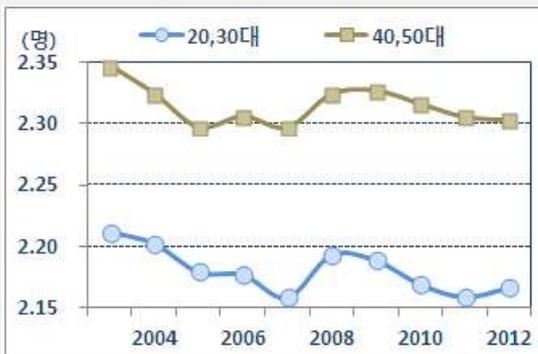
7) 본 보고서는 협의의 슈바베 계수를 사용. 광의와 협의라는 용어는 본 보고서의 자의적 명명.

	12대 소비 지출	중분류	소분류
슈바베 계수(협의)의 주거비	주거 및 수도광열	실제 주거비	월세
			기타 주거비
		주택유지 및 수선	벽지
			바닥재
			기타주택유지 및 수선재
			설비·수리서비스
			세놓는 주택수선
		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	상하수도료
			쓰레기처리
		기타주거관련서비스	공동주택관리비
			기타주거서비스
		연료비	전기료
			도시가스
			LPG연료
			등유
경유연료			
연탄			
공동주택난방비			
기타연료비			
슈바베 계수(협의+광의)의 주거비	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	가구 및 조명	장롱
			화장대
			침대
			장식장
			소파
			책상
			의자
			식탁 및 식탁의자
			밥상
			조명기구
	가전 및 가정용기기	기타가구	
		중고가구	
		전기밥솥	
		가스·전자레인지	
		일반냉장고	
		김치냉장고	
		정수기	
		에어컨 및 선풍기	
		난로 및 온풍기	
		공기청정기 및 가습기	
세탁기			
식기세척기			
진공청소기			
전기다리미			
기타가정용기기 및 가전			
중고가전 및 가정용기기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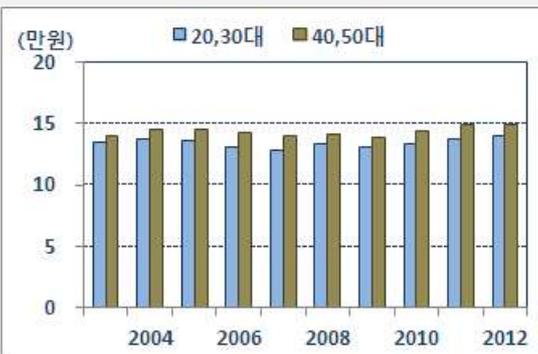
○ 소득 수준이 높은 중년 가구가 청장년 가구보다 앵겔 계수가 높은 이유

- 앵겔 계수는 가구의 가계소비지출 대비 식료품비 지출을 산출한 것으로 가구당 가구원 수, 가구원의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음
- 따라서 가구주 연령별 가구 간의 앵겔 계수 비교 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앵겔 계수가 낮다는 일반적인 이론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됨
 - 2011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앵겔 계수는 60대 이상, 50대, 40대, 30대, 20대 순으로 높게 산출되어 각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련성이 감소
- 한편, OECD 균등화척도를 통해 가구원 및 가구원당 식료품비를 재산출 시 중년 가구의 가구원 수와 식료품비 지출이 청장년 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
 - OECD 균등화척도(OECD-modified scale)는 가구원 1명 추가 시 증대되는 욕구를 나타내는 수치로 본래 가구원 1인당 소득이 가진 한계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
 - 식료품비 소비 역시 가구원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식생활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욕구가 증대된다는 가정으로 해당 척도를 대입하여 재산출한 결과,
 - 중년 가구는 조정 가구원 수는 물론, 가구원당 식료품비 지출 역시 청장년 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
- 이 같은 결과는 가구원의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되는 식료품의 질적 차이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

< 가구주 연령별
가구당 균등화 가구원 수 >



< 가구주 연령별
균등화 가구원당 식료품비 지출 >



자료: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, OECD 자료 활용 재구성.

- 주: (1) 가구주 연령 청장년(20, 30대) 및 중년(40, 50대)의 2인 이상 가구 기준
 (2) 균등화 가구원은 OECD-modified scale에 따라 15세 이상 가구원을 성인 기준으로 성인 1명은 1, 그 외 추가 성인은 0.5, 어린이는 0.3의 계수를 대입하여 산출
 (3) 2010년 실질 기준
 (4) 식료품비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소비 지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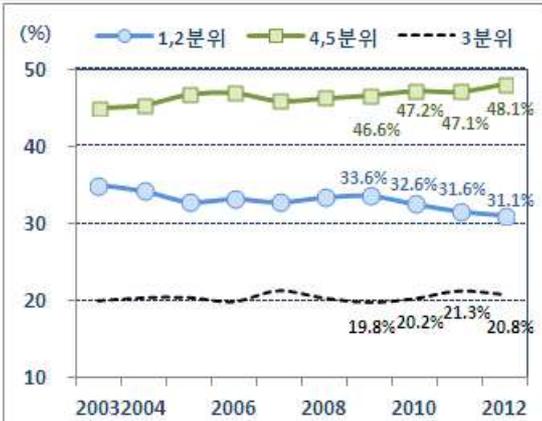
○ 청장년 가구의 소득 수준 하락과 세대 간 양극화

- 특히 금융위기 이후 청장년 가구의 소득 계층 하향 이동 추세가 나타나면서 앵겔·슈바베 계수 상승과 함께 소득 수준의 상대적 저하를 반영
- (중위 이상 소득 계층 감소) 금융위기 이후 청장년 가구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60%에 포함되는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
 - 최근 3년 동안(2009~2012년) 청장년 가구 중 소득 4, 5분위 가구 비중은 4.07%p 감소했으며, 소득 3분위 가구 비중은 1.14%p 감소
 - 한편, 같은 기간 중년 가구의 경우 소득 4, 5분위 가구 비중은 1.49%p 증가한 동시에 소득 3분위 가구 비중은 1.05%p 증가
- (하위 소득 계층 증가) 청장년 가구의 하위 소득 계층 수가 증가하면서 소득 계층의 하향 이동 및 세대 간 양극화가 진행
 - 전체 청장년 가구 가운데 소득 1, 2분위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2.3%에서 2012년 37.5%까지 증가
 - 이에 비해 중년 가구의 소득 1, 2분위 비중은 2009년 33.6%에서 2012년 31.1%로 감소

< 청장년 가구의 소득 분위별 비중 >



< 중년 가구의 소득 분위별 비중 >



자료: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재구성.

- 주: (1) 가구주 연령 청장년(20, 30대) 및 중년(40, 50대)의 2인 이상 가구 기준
 (2) 세대별 전체 가구 대비 각 소득 분위에 속한 가구 수의 비중
 (3) 1분위: 소득 하위 20%, 2분위: 소득 하위 20~40%, 3분위: 소득 상위 40%~60%,
 4분위: 소득 상위 20~40%, 5분위: 소득 상위 20%.

8) 현대경제연구원, "세대별 행복도 차이의 배경과 시사점 - 고령층일수록 일자리, 노후준비 등 '행복인프라' 취약" 「경제주평 13-12」, 2013.

HRI 경제 통계

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

<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>

구 분		2011		2012					2013	
		4/4	연간	1/4	2/4	3/4	4/4	연간	연간(E)	
국민 계정	경제성장률(%)	3.3	3.6	2.8	2.3	1.5	1.5	2.0	3.1	
	민간소비(%)	1.1	2.3	1.6	1.1	1.6	2.8	1.8	2.5	
	건설투자(%)	-2.1	-5.0	1.5	-2.1	-0.2	-4.1	-1.5	2.2	
	설비투자(%)	-3.3	3.7	8.6	-3.5	-6.5	-5.1	-1.8	4.8	
대외 거래	통 관 기 준	경상수지(억 \$)	114	261	26	112	146	149	433	285
		무역수지(억 \$)	92	308	12	97	75	100	285	259
	수출(억 \$)	1,404	5,552	1,349	1,402	1,331	1,400	5,481	-	
	증감률(%)	(9.0)	(19.0)	(3.0)	(-1.7)	(-5.7)	(-0.3)	(-1.3)	(5.6)	
	수입(억 \$)	1,313	5,244	1,336	1,305	1,256	1,299	5,196	-	
증감률(%)	(13.4)	(23.3)	(7.8)	(-2.8)	(-6.9)	(-1.0)	(-0.9)	(6.4)		
소비자물가 상승률(%)		4.0	4.0	3.0	2.4	1.6	1.7	2.2	2.5	
실업률(%)		2.9	3.4	3.8	3.3	3.0	2.8	3.2	3.3	
원/달러 환율(평균, 원)		1,144	1,108	1,131	1,152	1,133	1,090	1,126	1,060	

주: E(Expectation)는 전망치.